

#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제동'

광주시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비용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2호선 착공식 비용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홍보비 3000만 원도 일괄 삭감했다.

산건위는 아울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 2호선 확정 구간 이외에 또 다른 노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계획 전 타당성 조사 사업비 3억7000만원도 모조리 삭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착공식은 당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 일정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의 이같은 결정은 2호선 우선착공 구간에 대한 건설본부 측

## 광주시의회, 운영비용 4000만원 전액 삭감

### "환경평가 없이 안돼" vs "의회가 재촉한 일"

의 '꼼수'에 반발한 상징적 제동으로 풀이된다.

시는 당초 운전저수지 인근 BMW 매장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4.5km 구간을 우선 착공 구간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운전저수지 지난 지점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2.89km 구간으로 축소했다. 내년 6월 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 비껴가기 논란이 일었다.

공사구간이 4km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특히 운전저수지는 지하수 오염위험이나 지반 등과 관련 영향평가가 필요한 곳이어서 이

를 피하고 임기 내 서둘러 착공하기 위해 우선착공 구간을 대폭 단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시의 회도 이를 문제삼았다.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작 빨리 착공하라고 재촉해온 시의회가 착공식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건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 심의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부 의원 측은 "상징적 삭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다분히 감정적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 관계자는 "1단계 구

간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6~8월께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 12월 말에나 완료할 예정임에도 착공을 서두르는 건 윤장현 시장의 임기 내 착공 약속을 의식한 것 아니냐"며 "최소한 간이 영향평가라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예산을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3단계로 나눠 시공된다. 전체 구간 중 4.2km는 지상 노선으로 건설되고 지하 구간 중 2.2km는 4.3m 깊이, 9.5km는 1~1.5m 깊이로 각각 건설된다.

총 사업비 2조5799억원을 들여 1단계 구간(시정~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은 2023년, 2단계(광주역~철만~수완~시정)는 2024년,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은 2025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 시리아 난민, 망망대해 20시간 헤매다 구조

시리아 난민 청년이 작은 고무 보트에 의존해 홀로 망망대해를 20시간 넘게 헤매다가 구조단체에 극적으로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비영리 난민구조단체 '프로액티바 오픈 암스'(POA)는 4일(현지시간) 리비아 영해 바깥을 지나가던 순찰선이 혼자 바다를 표류하던 시리아 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순찰선의 리카르도 가티 선장에 따르면 선박은 지난 1일 순찰을 마치고 근무 교대를 위해 몰타로 이동 중이었다. 기상 악화로 바다의 물결까지 거세져 서둘러 육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 때 선박에 타고있던 자원 봉사자 한 명이 쌍안경으로 바다를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선박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뭔가가 떠 있다고 소리쳤다.

문제의 물체를 향해 다가간 순찰선은 3m 크기의 고무보트에 타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순찰선을 향해 "시리아 사람이다, 시리아에서 왔다!"고 외치다가 힘이 빠진듯 주저앉았다.

남성은 '사미'라는 이름의 30세 시리아인으로 확인됐다. 그는 내전을 피해 리비아에 거주하다가 스웨덴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남성이 타고 있던 보트에는 모터엔진과 비상용 건전지, 마른 과일 등이 실려 있었다. 구조대는 남성에게 먼저 먹을 것을 제공한 뒤 몸을 씻고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성은 금세 기운을 회복했다. 현재 그는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에 위치한 난민 신청 시설에 머물고 있다.

## 독일 '순교자'展 논란...테러범도 포함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일명 '순교자'전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잔다르크 등과 함께 9.11테러범과 파리 동시다발테러범도 '순교자'로 규정해 전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는 덴마크의 한 예술집단 '호라이의 또 다른 눈(The Other Eye of the Tiger)'이 기획한 것으로 지난 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열렸을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덴마크 문화장관이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이다.

이번 베를린 전시의 내용은 지난해 덴마크 전시와 크게 달랐던 것이 없다. 신념을 위해 목숨을 버린 20명의 사진 또는 그림과 설명 등과 함께 이들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전시해놓고 있다.

문제는 '순교자'로 9.11테러범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아타, 2015년 파리 동시다발 테러 당시 바탈랴를 극장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려 90명을 살해한 범인 3명 중 한 명인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가 김 목사와 나란히 전시돼 있다는 점이다. 모스테파이 코너에는 바탈랴를 극장 입장권도 전시돼 있다.

4일(현지시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주독일 프랑스 대사관 측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예술적 창조적 자유를 존중하지만, 순교와 테러리즘을 혼동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시 당국은 이 전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지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구세군 모금원 총격 살해 미 20대 체포

콜리블랜드에서 자선금의 모금액을 수급하려 나가던 구세군의 한 직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미국의 20대 4명의 차량을 연속 강탈해 도주하던 끝에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다.

4일 이 곳의 한 법원은 윌리엄 존스(27)를 1급 살인을 비롯한 여러 죄목으로 구속한 뒤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걸고 구금했다.

경찰은 21세의 구세군 자레드 플레섹이 유니폼 차림으로 2일 자기 아파트의 현관을 나서는 순간 존스가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머리를 총으로 쏘았다고 말했다. 구세군 대변인은 플레섹은 구세군 청년회원으로 이 날 순에 성경책을 든 채 숨었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플레섹이 여러 해 동안 구세군에서 일해왔으며 성경연구회 교사로 일했다고 말했다. 구세군의 콜리블랜드 책임사관 켈린 존슨은 그가 수십명의 10대들의 멘토 역할도 맡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이번 총격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법원 기록에도 존스의 변호사 선임여부가 밝혀져 있지 않다.

존스는 총기를 이용한 차량강도로 2년간 복역한 뒤 지난 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인호 기자



신타원정대 선출 포장 5일 부산 신세계 센터시티 문화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제1회 신타원정대' 행사에 참가한 후원 기업 및 단체 직원들이 저소득층 아동 560여 명에게 전달할 생탄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 여행사 잇단 고객돈 먹튀 사기 "대책 마련 시급"

여행사의 이른바 고객 돈 '먹튀'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행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여행을 갈 수 없도록 한 혐의(사기)로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여행사 대표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주변의 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0여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여명에게 5000만원 가량의 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출국 전날 고객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빚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경영이 악화됐고 여행 상품을 판 돈으로 회사 빚을 갚거나 운영비를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선 11월 광주 등부경찰도 회사 부도를 내고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여행사 대표 B(44)씨를 구속했다.

B씨는 예비 부부 등 90여명으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로 1억6000여만원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신혼여행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빠지자 예비부부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항공권과 호텔 예약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신혼여행에 나선 고객들은 현지에서 대금 문제로 귀국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 1000여만원을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여행사 대표 D(40)씨가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는 여행사 운영자금이 없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